

唐傳奇에 나타난 뉴에이지(New Age) 고찰

김낙철*

<目 次>

1. 시작하는 말
2. 당전기와 뉴에이지(New Age)의 연관성 검토
3. 당전기 작품 속에 이미 구현된 뉴에이지 성분
 - 1) 범신론
 - 2) 환생론
 - 3) 영적 각성
 - 4) 초현실적 존재와의 소통과 접촉
 - 5) 종교다원주의
4. 맺는 말

1. 시작하는 말

당전기와 뉴에이지(New Age)¹⁾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당전기의 출현은 문인들의 의식적인 창작을 통해 중국 정통문학의 범주에서 소외되었던 소설이 진정한 문학 갈래로 인정받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내용과 체재 상 애정류를 비롯하여 남북조 시대의 지괴 성향을 벗어난 현실성 짙은 작품들이 그러한 발전상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소설이 여전히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뜻의 ‘전기(傳奇)’로 불렸던 것은 어떤 시기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 ‘전기’라는 명칭에 합당한 창작 동기가 끊임없이 존속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 三育大學校 中國語學科 副教授

1) ‘뉴에이지’라고 하면 새로운 종교·철학·사상·이념·사회·문화 현상 등등 그 명칭이 의미하는 폭이 매우 넓은데 본고에서는 ‘뉴에이지’로 통칭하였다.

한다. 당전기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교·불교·도교 등 종교 문화적 성분에 대한 사고와 관심이 요소요소마다 각색 표출되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뉴에이지가 인도의 힌두교를 비롯한 동양의 종교 철학 사상을 이념의 토대로 삼았고 중국 역시 과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당전기와 뉴에이지는 일차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둘 사이의 실증적인 관계 탐색은 과거 당전기 작품들이 오늘날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범신론·환생론·영적 각성·초현실적 존재와의 소통 및 접촉·종교다원주의 등 '기이한 영성 운동'²⁾의 개념을 앞서 활용했던 사례들을 직접 찾아 분석해야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뉴에이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는 지양하고 역사의 반복 순환성에 착안하여 이상 뉴에이지의 다섯 가지 기본 이념에 상응하는 전기 작품들을 대상으로 당전기가 지닌 뉴에이지 성분을 소급 고찰하는 것이 연구 목적임을 밝힌다.

2. 당전기와 뉴에이지(New Age)의 연관성 검토

당전기의 형이상학적 내용과 뉴에이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A.D618-907년간 유행했던 중국 소설 문학과 20세기 이후 서구에서 나타난 뉴에이지, 즉 고대와 현대라는 엄청난 시대적 간극과 동서양의 공간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실상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으려면 전반적인 세계 역사·철학·종교·문화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뉴에이지가 인도 중심의 동양 사상을 추구했다는 설에 근거하여 전기 작품 내용을 토대로 상호 연관성을 밝히는 데에 범위를 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국 고전소설을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 종교 및 문화 현상을 두루 운용하는 뉴에이지와 비교하여 공통점 내지 차이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뉴에이지 자체가 현 시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 운동과 사회 활동 내지 문학·예술·문화 등을 총칭하는 단어로써 확실한 교리·조직·제도가 없는 정신세계의 흐름이기에 하나의 정

2) 레이 윤겐(Ray Yungen), 스티븐 황 번역, 『뉴에이지의 모든 것』, 서울, i-ePUB, 2007, 3쪽.

형화된 프레임으로 삼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현대 뉴에이지가 추구하는 주요 목적과 속성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이미 당전기에 실려 있었던 점, 뉴에이지가 인도를 비롯한 동양 사상을 기초로 출발했고 또 그러한 과거 동양 사상이 전기소설에 영향을 끼쳤던 점을 고려할 때 당전기와 뉴에이지의 관계는 충분히 논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포괄적인 뉴에이지와 중국 고전소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한 가지 기준점을 정하고 거기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을 찾아서 상호 관계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논리 전개상 가시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당전기와 뉴에이지가 지닌 가장 공통된 특징 즉 '기이(奇異)함'을 그 기준점으로 삼았다.

뉴에이지는 현대 개인주의적 영성운동의 대표적 사례이며 그 본질이 종교공동체 대신 대중문화의 옷을 입고 자신을 표현하는 대체종교이면서 동시에 사회운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³⁾ 1875년 인도 힌두 철학에 뿌리를 둔 범신론적 전일주의를 주창하는 신지학협회가 미국에서 창설되면서 기원이 시작된 후, 1900년 스위스 아스코너의 공동체 A. 피오다가 힌두교와 불교 심리학에 서구 점성학과 기독교를 혼합하여 태양계 회전 순환운동의 별자리 이동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약 2000년마다 어떤 변화의 절정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은 물고기자리였고 지금은 물병자리라는 새로운 영적 부흥 시대가 왔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뉴에이지는 서구 합리주의와 과학만능주의가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들과 접목되어 나타난 정신 혁명의 일환이었다. 이들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인류는 점점 물병자리 에너지(Aquarian Energy)에 자신들을 맞추게 되고 구시대의 에너지(The Old Age)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가르친다.⁴⁾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념적 혼란과 공동화는 영적 교사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였는데,⁵⁾ 마침 지두 크리스나무리티, 오쇼 라즈니쉬 등 소위 구루라고 불리는 인도

3)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사회학의 지평」, 『한국학연구』 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341-342쪽 참조.

4) 레이 윤겐(Ray Yungen), 앞의 책, 3-5쪽 참조.

5)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의 문화사회학적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7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253쪽 참조.

명상철학 스승들의 동양 신비주의 이념이 미국에 전파 확장되면서 60년대에는 히피 문화를 만들어냈고 70년대부터는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종교·문학·건강·교육·성공학·미디어 사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문학사상은 공맹(孔孟) 이후 줄곧 현실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낭만적인 정신과 환상력은 이미 굴원의 『초사(楚辭)』에서 그 양상을 드러냈지만 줄곧 미진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한위(漢魏) 시대에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괴류가 번성하였고 당대에 이르러 비로소 문인들에 의해 적극적인 신이한 이야기들이 지어졌다. 환상적인 기이함이야말로 전기 작가가 추구했던 흥미의 원천이며 오늘날의 뉴에이지와 교감할 수 있는 기본 성분임이 분명하다. 당전기와 뉴에이지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기본 이념에 비추어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신론(汎神論)이다. 범신론은 뉴에이지를 포함한 모든 종교와 철학사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뉴에이지에서는 힌두교와 불교 사상을 혼합한 교리를 가르치며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신이다.'라는 범신론을 옹호한다. 당전기 작품 또한 유불도(儒佛道) 등 여러 종교 철학사상이 혼재한 상태에서 세상 자연 만물을 신적 존재로 보는 범신론을 적용하여 최대한 기이함의 효과를 살리고자 하였다. 유교가 강세였던 중국에 인도 문화가 들어온 후 수많은 정령(精靈)들이 인간들과 공존하며 별이는 환상적인 스토리는 어느덧 육조 지괴의 문학 전통이 되었고, 이어 나타난 문인들의 의식적인 창작물인 당전기도 그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작가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러한 신괴적 소재를 더 확장하고 내용에 다변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당전기가 살아 있는 사물과 생명 없는 대상에 혼이나 영을 부여하는 애니미즘(animism) 같은 범신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령들의 활동상을 묘사했던 주요 원인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얽힌 범우주적인 심오한 이치를 논함이 독자의 흥미 유발을 전제로 하는 소설의 창작 목적에 맞지 않으며 그렇다고 신적 존재를 빼놓고 기이한 이야기를 지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환생론(還生論)이다. 뉴에이지가 신봉하는 환생론은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에 따른 것으로서 윤회(輪回)란 일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이론이다. 당전기에 나타난 윤회설은 주로 불교 교리를 적용시켜 문학 작품의 일정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나,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윤회설은 신성한 영혼이 외적인 세계로부터 내적인 세계로,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면서 거듭 태어나 궁극적으로 신의 원리와 합일을 이룬다는 구체적인 믿음을 가리킨다. 다만 당전기 주인공들이 윤회를 통해 다시 출생하여 전생에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성취하고 마침내 신선이 되어 불로장생하는 방식의 서사 구조가 가리키는 환생론의 기본 취지와 원리는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 영적 각성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뉴에이지의 동양 사교의 수용은 신과 인간의 무조건적 주종관계를 강조한 기독교적 신앙관을 배제하고 누구나 자기 수양과 개발을 통하여 영적 각성에 이르면 인간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 주었다. 크리스나무리티는 기존의 가르침에 집착하면 영원히 그 가르침에 속박되어 자유로울 수 없다 하였고, 라즈니쉬는 신을 가장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면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로 평가되고 스스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과 더불어 모든 지식과 상대성을 극복하고 만물과 인간 그리고 생사의 경계를 초탈한 장자의 무아(無我)를 최고 가치로 인식하였다.⁶⁾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속박의 굴레로 작용했던 유교사상과 달리 노장사상은 마음을 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위적 욕망을 감소시키고자 힘썼던 것처럼, 뉴에이지에서 시도하는 명상 수련 역시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마음을 버리고 더 높은 단계의 자아와 연결되거나 조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에이지에서는 이를 가리켜 영적 각성을 통한 자아실현이라고 부르는데 실상 당전기에서 도사들이 나와 음양오행을 설파하고 수도(修道) 행위를 선양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6) 곽용화, 『당신은 뉴에이지와 그 음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서울, 낮은울타리, 1997, 23쪽 참조.

넷째, 초현실적 존재와의 소통과 접촉이다. 뉴에이지는 이른바 심령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요가·점성술·관상·투시·최면술·강신술·잠재능력 개발 등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와 체험을 강조한다. 당전기에 나타난 초현실계는 신선을 동경하고 귀신의 존재를 확신하며 동물과 무생물의 정괴(精怪)가 인간화된다는지 음양오행 내지 꿈의 해석, 이승과 저승 세계, 온갖 도술, 인생의 필연적인 숙명론을 묘사하는 사건들을 통해 두루 표현되었다. 그중 귀신과 소통하고 접촉하는 기이한 이야기들은 뉴에이지가 보여주는 초현실계의 영역과 존재의 의미를 죽히 흡수할 만큼 실례가 다양하고 내용이 풍성하다.

다섯째, 종교다원주의이다. 뉴에이지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가르침이 서로 다르지만 실상은 모두 같은 것들이므로 여러 종교의 교리를 통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가르침을 얻을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종교 통합의 시도나 가르침은 일찍이 고대 중국에서 삼교 합일을 도모한 바와 매우 흡사하다. 삼교는 유교·불교·선교 세 종교를 아울러 가리키던 용어로 유불선(儒佛仙) 혹은 그중 선교를 협의의 도교로 간주하여 유불도(儒佛道)라 칭하기도 한다. 삼교 합일은 위진남북조 시대 북주(北周: 557-581)에서 시작되어 처음에는 큰 의미 없이 유교와 불교 및 선교 세 가지 독자적 체계를 갖춘 별개의 종교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다가 나중에 도교가 나타나 포용과 융합의 과정을 거치며 정착된 개념으로서⁷⁾ 이후 당송을 거쳐 원·명·청대까지 이어진 종교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의 절이나 도교 사원에 있는 공자와 석가와 노자 또는 신선 상징물들의 혼재된 모습만 보더라도 뉴에이지의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통합 개념과 동일한 당시 유불선 삼교 통합의 분위기를 다분히 느낄 수 있다.

7)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A%B5%90>

3. 당전기 작품 속에 이미 구현된 뉴에이지 성분

1) 범신론

범신론의 기본 논리는 신과 우주는 하나라는 데에 있다. 세상 밖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어떤 절대자가 신이 아니라 궁극적이며 무한한 우주와 자연법칙 그리고 자연에 실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이다. 뉴에이지 사상의 기초로 작용한 인도의 힌두교는 이처럼 우주와 신을 하나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범신론적 종교라고 하겠다. 그들이 말하는 브라만(Brahman)은 인격적 창조신이 아닌 우주 전체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는 브라마(Brahma), 창조된 우주를 유지하는 비슈누(Vishnu), 다시 창조를 위해 파괴하는 시바(Shiva)가 힌두교의 삼신(三神)이라 불리며 각각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들 역시 브라만이라는 총체적인 우주의 일부일 뿐이다. 천지를 개벽한 인간 형상의 거인 신 반고가 죽어서 그 시체로부터 자연 만물과 인간들이 신의 변형체로 새롭게 탄생했다는 내용의 중국 반고 신화도 대우주 자연과 소우주 인체의 연관성을 반고의 죽음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당전기의 범신론적 성분은 만물과 신이 하나라는 내재성을 중시한 뉴에이지 사상 체계보다는 대체로 자연과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여 각각의 신이 있음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인격적 실체로 의인화하고, 또 신과 만물을 분리함으로써 신의 초월성을 인정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특히 모든 사물 안에 초자연적 실재인 정령(精靈)이 존재한다고 믿는 범신론의 또 다른 형태인 자연 종교 애니미즘은 작품 내용을 기이한 쪽으로 몰고 가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간보(干寶)의 『수신기(搜神記)』를 보면 “물체가 늙으면 못 정기(精氣)들이 거기에 의지한다고 들었다.…… 무릇 육축과 거북·뱀·물고기·자라·풀·나무 종류는 오래 되면 영이 거기에 의지하여 능히 요괴가 될 수 있다.”⁸⁾는 언급이 나온다. 정령에 대해 가진 이와 같은 작가 인식은 수많은 정령 소재의 지괴를 생산하였고 지괴로부터 발전한 당전기는 동식물 등 물체마다 인격성을 가진 영(靈)이 있어

8) 『搜神記』「第19卷6條」:「吾聞物老, 群精依之.…… 夫六畜之物, 及龜蛇魚, 鱉草木之屬, 久者神皆憑依, 能爲妖怪.」

꿈·환상·둔갑 등 방법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며 인간들의 삶에 직접 관여하는 정령 소재의 이야기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왜나무 신령들의 도움으로 영험한 도사를 소개받고 그를 통해 불로장생하게 된다는 배형(裴鏞)의 「강수(江叟)」, 여인으로 둔갑한 여우 임씨가 정육(鄭六)이라는 가난한 선비를 만나 함께 자식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중국에는 남편의 고집 때문에 자기 정체 가 밝혀져 사냥개한테 물려 죽는다는 심기제(沈既濟)의 「임씨전(任氏傳)」, 한 서생이 스승으로부터 신기한 옛 거울 하나를 선물로 받아 그것으로 재앙을 쫓고 요물들을 물리치는 왕도(王度)의 「고경기(古鏡記)」 등이 있다.

형산의 왜나무가 말하였다. “형님은 남경 길가의 왜나무 왕이라는 칭호를 언제야 버리실 겁니까?” 그러자 큰 왜나무가 말하였다. “백 팔십 년이 지나면 응당 그 자리를 버릴 것이네.”⁹⁾〈강수〉

정씨가 보니 임씨가 별안간 말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본래의 여우 모습으로 변하여 남쪽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검은 개는 그 여우를 쫓아갔다. 정생이 뒤따라가며 소리를 쳤지만 제지할 수가 없었다. 1리를 좀 더 달리다가 결국 임씨는 개에게 잡혀 죽고 말았다.¹⁰⁾〈임씨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는 용 몸은 뱀으로 붉은 모자에 자주색 옷을 입고 저에게 다가와 하는 말이, ‘나는 보경의 정령(精靈)이요. 이름은 자진(紫珍)인데, 일찍이 그대 집에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이 있어 이렇게 부탁하러 왔소.’¹¹⁾〈고경기〉

「고경기」처럼 무생물의 정령을 소재로 한 전기 소설은 우승유(牛僧儒)의 전기 집 『현괴록(玄怪錄)』에 다량 수록되어 있다. 「원무유(元無有)」는 주인공 원무유가 어느 날 빈 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네 사람과 밤새워 서로 시를 짓고 칭찬을 나누었으나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집에서 사용했던 물건

9) 「江叟」: 荆山槐曰, “大兄何年抛却兩京道上槐王耳.” 大槐曰, “我三甲子當棄此位.”

10) 「任氏傳」: 鄭子見任氏忽然墮於地, 復本形而南馳. 蒼犬逐之. 鄭子隨走叫呼. 不能止. 里餘, 爲犬所獲.

11) 「古鏡記」: “龍駒昨忽夢一人. 龍斗蛇身, 失官紫服, 謂龍駒, 我即鏡精也, 名曰紫珍, 常有德於君家, 故來相托.”

들의 정령이었다. 그리고 「잠순(岑順)」은 주인공 잠순이 외가 친척 집에 머물렀는데 집 안에 있는 장기(將棋)의 정령한테 홀려 헤어지지 못한 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두문불출하다가 마침내 병이 들고 만다. 그의 친척이 잠순이 없는 틈을 타서 방 안을 파보니 무덤이 있었고 그 속에 장기 말이 놓인 장기판이 보였다. 그래서 그것들을 꺼내어 불에 태우자 잠순의 건강이 회복되고 더불어 값비싼 보물들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의 경우 악한 정령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때 그 정령이 깃든 사물을 없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정령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색다른 의미가 있다.

네 사람은 날이 썰 무렵이 되자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무유는 거기서 그들을 찾아보았더니 그 집 안에는 오직 낡은 방망이와 등잔대·두레박 그리고 깨진 솔탄 있을 뿐이었다. 이에 그는 이 물건들이 화(化)한 것임을 깨달았다.¹²⁾〈원무유〉

그 무덤 안에는 벽돌로 쌓은 집이 있었으며, 그 속에 있는 기물은 모두 갑옷과 투구가 대부분으로 그 수가 수백을 헤아렸다. 그 앞에는 금상으로 만들어진 장기판이 있었다. 판 위에는 장기의 말이 가득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모두 금과 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전쟁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이때 그 군사의 연사가 바로 장기에서 말이 갈 때의 기세였음을 알게 되었다.¹³⁾〈잠순〉

그밖에도 지렁이와 달팽이의 정령을 통해 시험관의 눈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을 갖추어도 과거 응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과거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한 「내군작(來君綽)」처럼 사회 문제를 풍자하기도 하고, 무덤 속의 동인(銅人), 동마(銅馬)의 정령이 도굴을 중지할 것을 거듭 경고하다가 이를 무시하는 도굴꾼들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든다는 「노공환(盧公渙)」과 같이 보복을 통해 정령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상의 정황들을 정리해 보면 당전기의 범신론은

12) 「元無有」: 四人暹明方歸舊所, 無有就心之, 堂中惟有故杵, 燭臺, 水桶, 破鑊, 乃知四人即此物所爲也.

13) 「岑順」: 墓有塋堂, 其盟器悉多, 甲冑數百, 前有金牀戲局, 列馬滿枰, 皆以金銅成形, 其干戈之事備矣. 乃悟軍師之詞, 乃象戲行馬之勢也.

신과 우주는 하나라는 뉴에이지의 기본 기조와 달리 만물에 들어있는 정령의 존재를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과정 및 그 정령이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여함을 묘사하는 방식의 애니미즘 색채가 뚜렷함이 감지된다.

2) 환생론

환생론은 범신론과 더불어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영향을 받은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 이념이다. 뉴에이지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환생에서 찾고자 한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론은 죽음을 영혼 세계에 도달하는 통로라고 보며, 또한 업(業)이라고 하여 살아서 하는 모든 행위에 의해 윤회의 차등이 결정된다고 여긴다. 뉴에이지는 인간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기에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야 하고 현생에서 깨우치지 못한 것은 내생에서 깨우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 그들은 이러한 환생은 영적으로 점점 상승 발전하는 진화 과정으로서 인간이 신이 될 때까지 반복된다고 믿는다.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신성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생전에 어떤 업을 쌓을 것인지, 또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개발하여 윤회를 마치고 우주와 하나 되는 최종 목표를 이룰 것인지가 뉴에이지 환생론의 관건이다.

그런데 당전기의 환생론은 현세의 행복과 불행이 전생의 숙원과 업보이며 현세의 업보에 따라 내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원리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전반적으로 인과응보를 주체 삼아 신이감(神異感)을 촉진하는 기능에 비중을 실은 측면이 크다. 우승유의 「당씨녀(党氏女)」의 주인공 왕란(王蘭)은 린여빈(蘭如賓)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한 후 린여빈의 아들로 환생하여 전생에 빼앗긴 재산 일부를 탕진하고 죽었다가 다시 당씨의 딸로 태어나 빼앗긴 재산 중 나머지를 모두 채워 받는다. 「두자춘(杜子春)」에서 역시 남주인공 두자춘이 죽어 염라대왕의 미움을 사서 여자로 환생하고, 「오전소(吳全素)」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노인이 죽어서 저승을 가지 않고 곧바로 아기로 환생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죽어서 상제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상제는 어떻게 원수 갚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왕란은 그 집의 자식이 되어 재산을 써버리겠다고 아뢰었다.¹⁴⁾〈당씨녀〉

“이 자는 사람됨이 음험하니 다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해서 안 되고 마땅히 여자로 만들어 송주 단보현(單父縣)의 현승(縣丞) 왕근(王勤)의 집에 태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두자춘〉¹⁵⁾

한 저승의 관리가 노인을 집 안으로 던져 넣자 막 침대로 떨어진 것 같더니만 새로운 아기가 벌써 울음을 터뜨렸다.¹⁶⁾〈오전소〉

또한 뉴에이지 환생론이 추구하는 신성 도달의 목적과 같은 무거운 느낌이 거의 없다. 가령 이조위(李朝威)의 「유의전(柳毅傳)」에서 용왕의 딸 용녀가 주인공 유의와 인연을 맺지 못했으나 나중에 인간으로 환생하여 젊은 과부가 되었다가 다시 유의를 만나 해로한다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미 신성화된 존재 용녀가 한낱 일개 아녀자로 퇴화된 것을 보면 윤회를 거듭하며 점점 진화한다는 뉴에이지의 환생론과 대치된다. 그리고 진홍(陣鴻)의 「장한가전(長恨歌傳)」은 도탄에 빠진 천하의 원성을 달래기 위해 처형당했던 양귀비가 봉래산의 신선이 되고 훗날 또 환생하여 당 현종과 만남을 기약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작가는 사람이 죽어서 신선이 된다거나 다음 생에 가서 다시 사람이 되는 식으로 윤회의 기능을 임의로 컨트롤하는 태도를 보인다. 생전에 아무런 공도 없이 그저 호사롭게 살다가 죽어서 신선이 되고 단지 속념을 품었다 하여 신선에서 다시 인간으로 하향 조정되는 비논리적 사이클은 환생 빈도를 통해 자기 개발 노력의 보상이 주어지고 점차 신분이 격상되어 신의 경지까지 도달한다는 엄격한 뉴에이지의 환생 원칙과 분명히 다른 당전기만의 윤회적 성향을 대변한다.

“작별하고 떠나려는 날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듯한 당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후회하고 있었지만, 인간 사회의 그 체면이라는 것

14) 「党氏女」: 某既死而訴於上帝, 上帝召問欲何以報, 蘭言願爲子耗之.

15) 「杜子春」: “此人陰賊, 不合得作男身, 宜令作女人, 配生宋州單父縣丞王勤家.”

16) 「吳全素」: 一吏執老人投於堂中, 才似到牀, 新子已啼矣.

에 얽매어 한 마디 인사도 건넬 방법을 찾지 못했소. 아! 그러나 지금 당신은 노씨가 되어 또 인간 사회에 살고 있구려.”¹⁷⁾〈유의전〉

“지금 이 속념을 일으킨 것 때문에 여기서는 더 살 수 없게 되었네요. 다시금 하계로 떨어져 태상황과 더불어 내세에 인연을 맺을 것입니다. 신선이 될지 인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꼭 다시 만나서 옛날처럼 다정하게 지낼 것입니다.”¹⁸⁾〈장생전〉

환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 철학 방면의 심도 깊은 사유와 경험 및 지식이 필요하지만 시대 정황상 오늘날 뉴에이지와 같이 형이상학적 체계에 관한 각종 전문 지식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당대 문인 작가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지 미지수이다. 더구나 아무리 불교가 성행했다고 하여도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전통 유교 사회에서 자기 조상이 이리저리 뒤바뀌는 환생 개념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음도 확실하다. 그러므로 전기 소설의 환생론은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태어난다는 식의 종교적인 교리 설파가 참 목적이 아니고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다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서사 구조를 엮어가는 데에 적절한 소재로서 선택되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3) 영적 각성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뉴에이지는 개인 안에 무한한 영적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자각하여 개발하는 데서 출발하였다.¹⁹⁾ 뉴에이지 영성이란 바로 이 시공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영적 에너지를 가리킨다.²⁰⁾ 사람마다 신성을 갖고 있으며 신은 무한한 비인격적 실체인 우주이기에

17) 「柳毅傳」: “然而將別之日, 見君有依然之容, 心甚恨之. 終以人事扼束, 無由報謝. 吁! 今日, 君, 盧氏也, 又家於人間.”

18) 「長恨歌傳」: “由此一念, 又不得居此. 復墮下界. 且結後緣. 或爲天, 或爲人, 決再相見, 好合如舊.”

19)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사회학의 지평」, 앞의 논문, 345쪽 참조.

20) 전명수, 「마음·몸·영혼과 사회에 대한 뉴에이지적 접근」,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0집, 2011, 116쪽 참조.

뉴에이지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가 가진 신성을 발견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는 합일성 즉 절대적인 선악도 진실과 거짓도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단일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분이야말로 영적 각성을 통해 인간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한다. 때문에 뉴에이지의 이념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영적 각성 차원에서 만큼은 자아와 우주의 합일성에 방해 되는 인간의 세속적 욕망, 즉 물질·명예·심신의 쾌락과 번민, 나아가 개인 삶과 관계된 모든 욕망을 배제할 것을 주장한다. 명상은 영적 각성을 위한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방법인데 용어만 다를 뿐 당전기 작품에도 그와 유사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당전기에 나타난 영적 각성의 부분은 노장사상을 근거로 삼았음을 보여준다.²¹⁾ 노자는 『도덕경(道德經)』 12장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시각·촉각·미각 등 감각 작용의 인위적인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박한 마음을 버린 채 오색(五色), 오음(五音), 오미(五味)에 집착함으로써 탐욕과 혼란에 빠져들게 하므로 인위적인 사고와 행동을 멈추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자는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 편에서 인위적인 욕망은 자연의 필요를 넘어선 것이기에 옹당 이를 버리고 본래 주어진 성품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며 마음속의 모든 티끌을 씻어낸 허(虛)의 상태에서 도(道)와 일체가 되기 위한 심재좌망(心齋坐忘)이라는 수행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과 심재좌망은 뉴에이지가 명상을 통해 신과 합일을 경험하는 원리 및 실천 방안과 상당히 일치한다. 지두 크리슈나무리티는 참다운 자유를 얻으려면 지식조차 부정해야 한다고 하였고,²²⁾ 오쇼 라즈니쉬 역시 지식을 추구하는 자는 날마다 더 배우려고 하지만 많이 알면 알수록 존재는 점점 더 사라져 버린다고 한 노자의 설에 동조했으며,²³⁾ 장자를 가리켜 대상을 부분적으

21) 노장철학을 연구하는 도가(道家)와 유불선 합일종교를 신앙으로 수용하는 도교인(道敎人)은 범주에 있어 구별되어야 한다. (李公華, 『儒佛仙三敎合一思想과 道敎와의 關係 및 道敎敎團의 社會的 役割』, 『道敎學研究』 17권, 2001, 167쪽 참조.)

22) 지두 크리슈나무리티, 정현중 옮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서울, 물병자리, 2002, 38쪽.

23) 오쇼 라즈니쉬, 김석환 옮김, 『노자와 라즈니쉬의 대화』, 서울, 까치, 1991, 136쪽.

로 바라보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는 철학자로 추앙했다.²⁴⁾ 뉴에이지의 영적 각성이 힌두교와 불교 및 영지주의 외에도 중국의 노장사상으로부터 그 이치와 방법을 십분 차용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배형(裴鏞)의 「허서암(許棲岩)」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노장사상과 도(道)의 밀접한 관계성을 직접 밝히고 있다.

“「노자」에서는 가장 미세한 물질이 가장 진실하다고 했고, 「장자」에서는 진인(真人)의 호흡은 발꿈치까지 이른다고 했으며, 「황정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 목숨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도사는 웃으며 “도에 가깝도다. 가르칠 수 있겠어.”라고 하였다.²⁵⁾〈허서암〉

“무릇 사람은 양정(陽精)을 타고났고 요물은 음기(陰氣)를 타고나서 혼(魂)이 백(魄)을 다 거두어 버리면 사람은 곧 장생하게 되고, 백이 혼을 거두어 사멸시켜 버리면 사람은 곧 죽게 되는 법일세. 그런 까닭에 귀괴(鬼怪)는 무형의 전음(全陰)이고 선인(仙人)은 무형의 전양(全陽)일세. 이 음양의 성쇠와 혼백의 교전이 몸 안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다 기색에 나타나게 된다네.”²⁶⁾〈손각〉

“용은 오행 가운데 목(木)에 속하고 검(劍)은 오행 가운데 금(金)에 속하지요. 금은 목을 극하여 상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어요?”²⁷⁾〈소광〉

뉴에이지 영적 각성의 방법은 당전기에서 ‘도를 닦는다’ 내지 ‘수행한다’는 의미와 통하며 영적 각성의 목표 도달치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도를 닦아 신선이 되는 것으로 대변된다. 이복언(李復言)의 「두자춘(杜子春)」에서는 주인공이 신선이 되기 위해 수차례 생사를 거듭하고 시공을 넘나들며 파란만장한 삶의 허상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입을 열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명상 수행을 한다. 거의 시험을 통과하는 듯싶더니 고사 후반부에 가서 모든 것이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24) 오쇼 라즈니쉬, 유시화 옮김, 『장자, 도를 말하다』, 서울, 도서출판 예하, 1991, 70쪽.
25) 「許栖岩」: “老子云 其精甚眞, 莊子云, 眞人之息以踵, 黃庭云, 但思一部壽無窮.” 笑曰, “去道近矣. 可教也.”
26) 「孫格」: “夫人稟陽精, 妖受陰氣, 魂掩魄盡, 人則長生. 魄掩魂銷, 人則立死. 故鬼怪無形而全陰也, 仙人無形而全陽也. 陰陽之盛衰, 魂魄之交戰, 在體而未有失位, 莫不表白于氣色.”
27) 「蕭曠」: “龍, 木類. 劍乃金. 金既剋木而不相生, 焉能變化?”

고 자식이 죽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자 자기도 모르게 탄식 소리를 내어 그 동안의 수행이 전부 허사로 돌아간다. 이때 도사는 두자춘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네 마음속에 있는 희(喜)·노(怒)·애(哀)·락(樂)·구(懼)·오(惡)·욕(慾)은 이미 깨끗해졌네. 아직도 완전히 잊지 못한 것은 다만 ‘애(愛)’뿐이로군. 만일 그대가 ‘아이고!’라는 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나의 약은 정련되고 자네도 신선이 되었을 것이네. 아! 신선이 될 수 있는 자는 진정 얻기 어렵도다. 나의 약은 다시 정제하면 되지만 자네는 다시 속세로 돌아가 살아야 한다네. 올바로 잘 살게나!”²⁸⁾(두자춘)

작가는 주인공의 삶을 기술하면서 인간이 신선이 되기 위한 수도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애써 표명하였다. 그런데 「두자춘」과 같이 사람이 영적 각성 즉 명상 수련을 통해 신선이 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진대 사실상 신선 사상을 제재로 한 대부분 작품들은 가령 앞서 예시한바 「유의진」의 유의가 용녀를 만나 신선이 되고 「장생진」의 양귀비가 죽어 신선이 되는 것처럼 신선이 되는 조건이 각고의 수행이 아닌 주인공이 누구를 만났으며 또 생전의 유명세와 세인들의 관심도에 따라 결정되는 등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영적 각성의 논리와 원칙에 벗어나 있다. 이 역시 당전기가 종교 철학의 지침서는 아니기에 작가는 영적 각성에 대한 과도한 설명이나 현학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흥미를 전달하는 소설 문학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었던 탓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작중 인물들의 특별한 삶을 통해 세상 만물의 이치를 음양오행으로 풀어주거나, 인생무상에서 벗어나 불로장생을 누리고 싶은 인간들의 욕망을 주인공이 특별한 존재를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아 신선이 되는 정도로 이야기 구성을 단순화했던 것이다.

4) 초현실적 존재와의 소통과 접촉

초현실적인 미지 영역에 대한 뉴에이지의 탐구는 과학적 합리주의에 지친 현대

28) 「杜子春」: “吾子之心, 喜, 怒, 哀, 懼, 惡, 慾, 皆忘矣. 所未臻者, 愛而已. 向使子無啼聲. 吾之藥成, 子亦上仙矣. 嗟乎, 仙才之難得也! 吾藥可重煉, 而子之身猶爲世界所容矣. 勉之哉!”

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뉴에이지가 말하는 신비 현상이나 정보들은 현 시대에 다시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뿐 이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며, 수 천 년 인류 역사에서 이렇다 할 과학적 근거를 밝히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상상과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 것들이다. 당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초현실적 세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즐겨 듣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정황은 그러한 기이한 내용이 당전기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서 추론할 수 있다. 뉴에이지가 현대에 와서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현실적인 합리주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본래 미지의 영적 세계를 향한 인간들의 지속적인 궁금증과 탐구심이 현대 과학과 연계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일종의 세계적인 사회 문화 현상임이 분명하다. 특히 사후 세계에 관한 정보는 뉴에이지와 당전기 모두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공통 관심사로서 그 중심에 유령 귀신과 같은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 현대도 그렇지만 옛날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단순 소박하게 살던 시절 귀신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공포심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귀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뉴에이지의 강신술 및 초혼의식과 더불어 불가사의한 귀신 소재가 당전기에 자주 등장했던 까닭도 이러한 인간들의 공통 심리적인 배경에서 쉽게 파악된다.

당전기에 묘사된 귀신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정류 작품에서는 여주인공이 한을 품고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비록 귀신을 다루지만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하기보다 남녀 관계의 회한과 애증을 녹여내는 낭만적인 스토리가 주를 이룬다. 장방(蔣防)의 「곽소옥전(霍小玉傳)」은 이생(李生)에게 버림받아 한을 품고 죽은 기녀 곽소옥의 원혼이 이생을 누구와도 백년해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줄거리로 봉건 시대 여성의 질투심을 심각하게 다루었고, 이경량(李竟亮)의 「이장무전(李章武傳)」은 이장무와 잠시 나누었던 불륜의 정을 잊지 못하고 상사병에 걸려 죽은 왕씨 며느리가 귀신이 되어 현실과 초현실계를 넘나들며 이장무와 못 다한 사랑을 완성한다. 또 진현우의 「이혼기(離魂記)」는 부모의 반대로 왕주(王宙)와 혼인이 무산된 천낭(倩娘)은 왕주를 따라 타향에 가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천당의 혼이었다는 이야기로서 혼의 실체와 기능을 주제로 삼았다.

장사를 치르게 된 전날 밤, 이생은 돌연 은연중에 영전에 처 놓은 가늘고 성긴 베로 만든 휘장 안에 소옥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용모는 아름다워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완연하였다.²⁹⁾〈곽소옥전〉

거리가 대여섯 걸음으로 좁혀졌을 무렵 모습을 분별할 수 있었는데 그의 복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름 아닌 집주인의 며느리였다. 옛날에 보았을 때와 달라진 건 없었으나 다만 동작이 가벼우면서 급하고 목소리가 맑았다. 이장무는 침상에서 내려와 그녀를 맞아 가슴에 안고 손을 잡았는데 그 정겨움은 마치 살았을 때의 느낌과 같았다.³⁰⁾〈이장무전〉

방안에 누워 있던 딸은 이 소식을 듣자 기뻐하며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웃으며 아무 말 없이 나아가 또 하나의 천당을 맞이하였다. 그러자 둘은 훌연히 합쳐져서 한 몸이 되었고 의상은 이중으로 겹쳐졌다.³¹⁾〈이혼기〉

귀신은 음(陰)에 속하여 완전한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은 신비스럽고 두려운 존재로서 이들이 음양계의 원칙에 따라 저승의 통제를 받으며 양(陽)에 속한 이승에서 벌이는 특이 양상이 당전기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를테면 억울하게 죽은 자가 저승 판결을 통해 소생한다거나 아니면 한 맺힌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하고, 또 귀신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산 사람과 선의적인 접촉을 이루는 인과응보적인 주제가 대부분이며, 간혹 우승유의 「제추녀(齊推女)」처럼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주고 직접 해를 끼치는 악마가 등장하기도 한다. 요주(饒州) 자사(刺史) 제추의 딸이 이씨(李氏)에게 시집가서 부친의 관가에서 아이를 낳자 그곳 토지 귀신 오예(吳芮)가 부정하다 하여 그녀를 무참히 때려죽인다. 그 후 꿈속에서 제추녀의 사정을 들은³²⁾ 남편은 선관(仙官)의 도움을 받아 오예를 저승에 보내 심판을 받게

29) 「霍小玉傳」: 將葬之夕, 生忽見玉總帷之中, 容貌妍麗, 宛若平生.

30) 「李章武傳」: 五六步, 即可辨其狀. 視其服, 乃主人子婦也. 與昔見不異, 但舉止浮急, 音調輕清耳. 章武下床, 迎擁携手, 款若平生之歡.

31) 「離魂記」: 室中女聞喜而起, 飾妝更衣, 笑而不語, 出與相迎, 翕然而合爲一體, 其衣裳皆重.

하고 재판에서 승소하여 그녀를 살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작품의 줄거리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세 개의 혼과 일곱 개의 백(魄)이 있사운데 죽은 후에는 그러한 혼백들이 모두 흩어져서 정처 없이 떠다니며 머물 곳을 잃게 됩니다. 지금 그것들을 거두어 모아서 한 몸으로 만들고 끈끈한 칠을 바른 뒤, 대왕께서 그녀를 속세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녀는 생전의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재생하게 될 것입니다.³³⁾”(제추녀)

「제추녀」가 「이혼기」와 마찬가지로 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임은 뉴에이지가 탐구하는 심령과학의 일부 분야와 성격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심장하다. 하지만 이러한 초현실적 존재에 대한 당전기와 뉴에이지 간의 관점 차이를 간과할 수 없는데, 즉 과거 당전기에 나타난 초현실적 존재가 대부분 문학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독자들이 그 실체와 사건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본래 주어진 흥미로운 소재 기능을 했다면,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 물질문명 시대인 현대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일부 초현실적 존재는 개인의 영적 각성과 개발에 도움을 위해 직접 소통하고 접촉해야³⁴⁾ 할 영적 실체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5)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며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 없고 각각 교리와 체계가 다를 뿐 구원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일치한다고 보는 주장으로서 19-20세기 초 서구 기독교와 문화에 반발하여 생긴 자유주의 신학운동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다. 다원주의는 상호 다른 것의 장점과 가치를 흡수 통합하는 게 가능하고 또 모든 종교가 하나로 귀결된다는 차원에

32) 당대 작가들은 꿈과 관련된 소설 창작을 특별히 좋아하였다. (楊義, 『中國古典小說史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166쪽 참조.)

33) 「齊推女」: “生人三魂七魄, 死則散離, 本無所依, 今收合爲一體, 以續絃膠塗之, 大王當街發遣方回, 則與本身同矣.”

34) 뉴에이지에서는 혼령과 소통 접촉하는 것을 채널링(chaneling)이라고 부르며, 영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 죽은 성현들의 혼령과의 채널링을 원한다.

서 혼합주의 내지 일원주의라고도 부른다. 즉 만물은 하나이며 표면상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통하듯이 다양한 종교들도 피차 의존 보완적이고 특별한 차이와 경계가 없는 동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에이지는 기독교의 예수그리스도,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도교의 노자, 회교의 모하메드, 심지어 뉴에이지의 크리슈나무리티 등을 인간에게 내재된 신성을 발현한 선각자들이라고 말한다.

종교다원주의의 발생 기원은 고대 헬라 문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중국의 경우 소설이 각 시대 사회상을 반영한 산물임을 인정할 때,³⁵⁾ 당전기에서 유불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두루 포진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도 종교다원주의가 고대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종교 사회 문화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와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이함'을 강조한 당전기 작품들은 유교적인 관념 하에 정해진 사회제도와 윤리를 옹호하면서도³⁶⁾ 모순된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여 불교와 신선사상 내지 샤머니즘을 적절히 배합한 도교 색채가 강렬하다. 신선사상·노장철학·무속신앙을 포함하는 선교를 협의의 도교, 유불선 삼교합일사상을 골자로 하는 종교를 광의의 도교라 한다 면³⁷⁾ 당전기의 종교는 광의의 도교가 적용되었다고 하겠다. 당전기의 보편적인 서사 구조를 살펴보면 【선비(수재 또는 과거에 낙방한 유생) → 미인을 만남(선녀, 요물) → 위기 발생(유교로서 해결 불가) → 도사 또는 고승이 등장(거의 도교가 문제 해결)】 순서로 되어 있다. 심기제(沈既濟)의 「침중기(枕中記)」는 유교 사상에 물든 선비의 인생 가치관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남아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마땅히 공명을 세우고 조정에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조정으로 들어와서는 재상을 지내며 여러 가지 음식을 충분히 장만해 놓고 먹고 훌륭한 음악을 골라 들으며 가족은 더욱더 번성하고 살림은 더욱더 부유하게 된 다음이라야 비로소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침중기)

35) 金炳傑, 『文學과 社會意識』, 서울, 創文閣, 1979, 24쪽 참조.

36) 金鐘均, 「소설이란 무엇인가」, 『文學概論』, 서울, 새문사, 1986, 142쪽 참조.

37) 李公華, 앞의 논문, 166쪽 참조.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상황에서 유교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었기에 무언가 초월적 능력에 의지하여 세상 복을 받고 나아가 불로장생을 누리길 원했던 당시 중국인들의 욕망은 다른 종교 쪽으로도 눈을 돌려 종교 다원화를 촉진케 하였다. 배형의 「손각(孫恪)」·「허서암(許棲岩)」·「고육(高昱)」의 예를 보자.

“그 스님은 연세가 많지만 사람의 신상에 닥치는 화복을 능히 판별하여 재앙으로부터 잘 구해주시니 그분을 통해 재를 올린다면 우리들의 이번 남행길에 더 많은 행운을 얻을 거예요.”³⁸⁾〈손각〉

“너는 석수를 마셨으니 이미 천년 장수를 누리게 되었노라. 정기(精氣)를 누설하지 말고 황음(荒淫)하지 않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재차 상봉하게 될 것이다.”³⁹⁾〈허서암〉

첫 번째 미녀가 말하였다. “각자 좋아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서로 말해 보기로 하자.” 그 다음 미녀가 말하였다. “나는 천성적으로 불교를 좋아해!” 그 다음 미녀가 말하였다. “나는 도교를 배웠어!” 다시 첫 번째 미녀가 말하였다. “나는 유교를 익혔지!” 그들은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의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론이 지극히 정밀하였다.⁴⁰⁾〈고육〉

특히 「고육」은 연못에 사는 요괴들 간의 대화를 통해 유불도 세 가지 종교를 결부시키는 종교 통합의 성향을 직접 표출하였는데, 예문 내용과 같이 다음 날 연못을 건너가던 승려·도사·유생이 차례대로 물에 빠져 요괴들의 먹잇감이 되자 당구오(唐句龍)라는 도학이 높고 신술(神術)을 지닌 노인이 나타나 그 못된 요괴들을 연못에서 바다로 쫓아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당전기의 최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기이함’은 이처럼 도교의 역량을 통해서 당시 신비주의적 환상과 문학적 영감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했는지를 생생하게 제시하였다. 신이함을 전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신선·이물(異物)·요괴·귀신·꿈·이승과 저승·기이 현상 등을 소재로 삼는 것이야 당연한 발상이지만, 위기와 절정의 대목마다 하필 불교

38) 「孫恪」: “僧行夏臘極高, 能別形骸, 善出塵垢, 倘經彼設食, 頗益南行之福。”

39) 「許棲岩」: “汝飲石髓, 已壽千歲, 無輪泄, 無荒淫, 復此來, 再相見也。”

40) 「高昱」: 又曰, “各言其所何道。”其此曰, “吾性習釋!”其此曰, “吾習道!”其此曰, “吾習儒!”各談本教道義, 理及精微.

의 고승이나 유교의 학식 많은 선비가 아닌 도술에 능한 도사가 갈등 해소의 종결자로 등장했던 연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한나라 말기 장도릉(張道陵)이 당시 세상에 편재했던 유교·불교·선교를 통합한 도교를 창설한 이래⁴¹⁾ 삼교 합일사상이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 투영되었던 결과로 판단되는데, 인물과 배경 및 줄거리가 유불선과 연관되고 고사 말미마다 도사가 나와 문제를 해결하는 서사 구조 시스템은 도교가 삼교 합일을 주도했음을 문학 차원에서 밝히는 유력한 단서가 될 것이다.

각기 다른 종교들과 세계관을 일원화하고 개개인의 영적 체험과 수행을 권장하는 뉴에이지의 풍조는 인류 및 사회성의 중요도가 대폭 희석되었다는 점에서 당전기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당전기 작가들이 기이한 이야기를 지으며 종교 통합의 싹을 키웠다는 점과 유불선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도교의 독보적인 판타지를 통해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던 당시 중국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는 오늘날 뉴에이지가 각국에서 봄을 일으키는 실제 정황과 상응하는 바가 크다.

3. 맺는 말

뉴에이지는 인간과 자연의 일체성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영성운동이며 세속화된 종교공동체의 공식적 모델을 탈피하여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표현하는 일종의 대체종교이자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그런데 뉴에이지가 주장하는 범신론·환생론·영적 각성·초현실적 존재와의 소통·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내용이 과거 약 천 몇 백 년 전에 나온 중국의 고전소설 당전기에 이미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개념들이 결코 현대 사회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아님을 입증한다. 유사 과학 및 종교 사이를 넘나들며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호소하는 뉴에이지의 신비주의 사상들은 각박한 일상에 지치고 무한 경쟁에 노출된 현대인들의 심리 안정 및 건강 증진 방면에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41) 李公華, 앞의 논문, 164쪽 참조.

42) 김중서,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6쪽 참조.

그러나 절대 선과 절대 악을 인정하지 않는 애매모호함과 윤리 도덕성이 결여된 자칭 자아실현의 명분은 개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현실 감각의 균형을 상실하고 미신적 사고에 몰입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 및 신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목표 달성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은 채 무언가 영험한 힘을 빌려 삶을 개선해 보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상업주의와 맞물리며 생긴 폐해로 지적된다. 신성한 영적 운동을 표방하면서도 현대인들의 구미에 영합할 목적으로 신비주의에 합리주의를 접목시키려다 보니 겪을 수밖에 없는 뉴에이지의 이러한 혼동 양상은 대체종교 및 사회운동으로서의 한계점임과 동시에 힌두교·불교·도교 및 여타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와 구분되는 별개의 특징이라 하겠다.

요컨대 유사 이래 동서양의 신비성을 복합적으로 편집한 신홍 종교 문화인 뉴에이지는 명칭만 새로운 시대를 뜻할 뿐 새로운 관념과 사상이 아니며, 그것이 중국 고대 소설의 내용들과 유사성을 보임은 미지 세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과거로의 순환 반복 현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상 당전기에 나타난 뉴에이지 이념과 방식들을 작가가 뚜렷한 목적의식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신성화 내지 특정 종교의 선양 또는 영적 사고의 전환을 위해 지어낸 것들로 여기기보다는 잠시 일상을 벗어나 환상 세계에 몰입하는 재미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설 제재 상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하는 편이 타당하다.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기이함'이라는 공통분모에 의해 뉴에이지의 형이상학적 개념에 부합하는 성분들이 당전기에서 속속 발견된다 하여도 그것들이 표출되었던 시대 배경과 목적 및 용도 차이에 따라 역할과 기능도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王立興·吳翠芬 註釋, 『唐傳奇英華』,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8.
- 傅繼馥 選譯, 『唐代小說選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정범진, 『앵앵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 劉英, 『唐代傳奇研究』, 台北, 正中書局, 1982.
- 楊義, 『中國古典小說史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 레이 윤젠(Ray Yungen), 스티븐 황 번역, 『뉴에이지의 모든 것』, 서울, i-ePUB, 2007.
-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사회학의 지평」, 『한국학연구』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의 문화사회학적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7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 전명수, 「마음·몸·영혼과 사회에 대한 뉴에이지적 접근」,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0집, 2011.
- 李公華, 「儒佛仙三教合一思想과 道教와의 關係 및 道教教團의 社會的 役割」, 『道教學研究』 17권, 2001.
- 곽용화, 『당신은 뉴에이지와 그 음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서울, 낮은올다리, 1997.
- 지두 크리슈나무리티, 정현중 옮김, 『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서울, 물병자리, 2002.
- 오소 라즈니쉬, 김석환 옮김, 『노자와 라즈니쉬의 대화』, 서울, 까치, 1991.
- 오소 라즈니쉬, 유시화 옮김, 『장자, 도를 말하다』, 서울, 도서출판 예하, 1991.
- 金炳傑, 『文學과 社會意識』, 서울, 創文閣, 1979.
- 김종서,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金鐘均, 「소설이란 무엇인가」, 『文學概論』, 서울, 새문사, 1986.
- 『老子』, 金丘庸 譯註, 서울, 正音新書, 1979.
- 『莊子』, 조관희 역해, 서울, 청아출판사, 1988.
- 宋倫美, 『玄怪錄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9.
- 崔眞娥, 『裴絢 傳奇의 試論 및 譯註』,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5.
- <https://en.wikipedia.org/wiki/Chuanqi>
- https://en.wikipedia.org/wiki/New_Age
- <http://www.cncultural.com/2015/01/the-bewitching-world-of-chinas-ghost.htm>
- <http://www.rapidnet.com/~jbeard/bdm/Cults/newage.html>
-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A%B5%90>

〈Abstract〉

A Study on Tang Chuanqi from the Perspective of New Age

Kim, Nak-chul

Tang Chuanqi(唐传奇) was a form of short story in the classical language which developed in the Tang dynasty. Many stories in Tang Chuanqi consisted of anecdotes, jokes, legends, and tales involving mystical, fantastical or legendary elements throughout the Chinese cultures. They went so far as to credit specific people as authorities for the story, however fantastic, and give particular times and places as settings. In particular mysterious contents of Tang Chuanqi have a long, complex relationship with the dead, ghosts, monsters and spirits have haunted the Chinese psyche for thousands of years. The New Age is a term applied to a range of spiritual o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that developed in Western nations during the 1970s. It's a multi-focused, multi-faceted synthesis, in varying degrees, of the Far Eastern, mystical religions, mainly Hinduism, Buddhism, Taoism, and Western Occultism, adapted to and influenced by Western, materialistic culture. The New Age phenomenon has proved difficult to define, with much scholarly disagreement as to its scope. It sometimes appears in secularized forms. In fact, The New Age Movement is a modern revival of very ancient, divergent, religious traditions and practices. Especially The New Age places strong emphasis on the idea that the individual and their own experiences are the primary source of authority on spiritual matters. So, according to metaphysical world view, there is a link between Tang Chuanqi and New 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bout dividing five types of the New Age's ideological issues - Pantheism, Reincarnation, Spiritual awakening, Surrealism, Religious integration shown up in Tang Chuanqi, and about finding out the meaning of their identical similarities.

Key Words: Tang Chuanqi, New Age, fantasy, mystery, spirituality

이 논문은 2017년 9월 27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11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